

신발용 PU시장 "정체"

신발산업 침체 따라 ... 동남아 수출은 활기

국내 신발산업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료인 신발용 PU시장이 침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0년부터 정체양상을 보여온 국내 신발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며 외국 바이어의 오더 감소 등으로 신발용 PU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국내 신발용 PU 공급현황(1994)
(단위 : M/T, %)

구 분	내수공급량	점유율
동 성 화 학	19,000	61.3
강 남 화 성	3,500	11.3
삼 성 폴 리	3,300	10.6
송 원 산 업	4,000	12.9
기 타	1,200	3.9
합 계	31,000	100.0

국내 신발용 PU는 내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후발국 신발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신발용 PU생산기업은 동성화학을 비롯 강남화성·삼성폴리·송원산업 등이 있으며 그동안 동성화학의 독점체제를 형성해왔으나 여타 기업의 추격이 가열되고 있다.

94년 연산 3만1000여톤으로 추정되는 국내 신발용 PU시장은 93년 3만톤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발용 PU시장은 동성화학이 61.3%를 점유하고 있으며 강남화성과 삼성폴리가 각각 11.3%, 10.6%, 송원산업 12.9%, 기타 3.9%로 집계됐다.

동성화학은 94년 1만9000톤을 생산해 1만1000톤을 수출하고 8000톤을 내수판매했는데, 내수판매에 있어 93년 6000톤에 비해 33%의 증가를 나타냈다.

또 송원산업은 94년 4000여톤을 판매해 93년 3400톤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기업들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내 신발용 PU시장은 신발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큰 변동없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의 후발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12>